



##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과 그 한계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description of Goguryeo Buddhism in Samgukyusa

---

저자 (Authors)	정호섭 Jung, Ho Sub
출처 (Source)	<a href="#">사학연구 (130)</a> , 2018.6, 5-48(44 pages) <a href="#">Sahak Yonku :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130)</a> , 2018.6, 5-48(4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사학회</a> 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82266">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82266</a>
APA Style	정호섭 (2018).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과 그 한계. 사학연구(130), 5-4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18.41.157.*** 2020/01/31 09:5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

#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과 그 한계

---

---

정 호 섭  
(한성대학교)

---

## 머리말

I.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 검토

II.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의 한계

## 맺음말

---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과제임.
- 투고일: 2018. 5. 18.    ● 심사일: 2018. 5. 23.    ● 게재확정일: 2018. 6. 4.
- <https://doi.org/10.31218/TRKH.2018.06.130.5>

## 요약

고구려의 불교사와 관련하여 삼국유사 편찬자들의 관심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불교전래에 있어서의 고구려의 선구적 역할과 고구려 멸망기 도교에 반대하고 이후 신라와 백제의 불교발전에도 기여하였던 보덕을 주로 주목한 것 같다. 또한 아육왕과 관련하여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도 불교와 깊은 인연이 오래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과 함께 신라 불교에 대한 지나친 중시는 삼국유사 속에 그려진 고구려 불교사를 살펴볼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불교사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의 기록은 너무나 소략한 편이다. 삼국유사에는 고구려 불교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여겨지는 義淵 등 많은 고구려 승려들에 대한 내용도 수록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고구려 불교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살피지도 못한 한계가 있다. 국내외 고승전류에서 확인되는 이들 승려들에 대해 삼국유사 찬자들은 삼국 불교 다시 말하면 해동 불교의 전개와 발전과는 상관없는 존재들로 인식한 듯하다. 그러나 많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중국, 일본, 신라, 백제 등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여러 문헌에도 확인되는데, 이들은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참여하고 일정부분 공헌하기도 하였다. 한국 고대에 있어서도 이주는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고, 구법이나 전법을 위해 동아시아 속에서 활동한 많은 승려들의 모습도 찾아진다. 또한 고구려 불교사와 관련한 여러 승려들이 여러 고승전 등에 수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불교의 흐름 속에서 함께했던 고구려 불교사의 틀 속에서 설명되지 못한 한계도 가지고 있다. 고구려는 중국과 근접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당시 유행하던 새로운 사상적 조류가 곧바로 전해졌고, 다양한 계통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다종족 국가를 이루면서 성장하였다. 때문에 고구려 불교도 동아시아 불교로서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보편성은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다수의

##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과 그 한계

고구려 승려들의 전기가 고승전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수록되도록 한 힘이었다. 향후 고구려 불교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고구려 불교가 가지는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을 좀 더 명확하게 구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고구려, 불교, 삼국유사

## 머리말

고대 불교사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국내 사서가 바로 三國遺事이다. 다만 삼국유사에 수록된 고구려 불교사에 대한 내용도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내용상으로는 海東高僧傳에서 삼국유사에 기재되지 않은 고구려 불교사와 관련 내용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불교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고구려 불교 전래 및 수용과 의미, 불교 신앙, 승려들의 활동과 삼론종, 고구려 말기의 사상계의 추이 등이 중심이었다. 비교적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기는 했지만, 고구려 불교사와 관련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 내용도 단편적이고 소략하기 때문에 고구려 불교의 전모를 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등의 국내사서와 중국 정사류, 고승전류 등 중국 문헌기록, 그리고 일본서기 등의 일본측 기록 등이 있지만, 고구려 불교를 명확하게 해명할 만한 기록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편인 것이다. 실물자료 가운데에는 4세기부터 불교적 요소가 나타나는 인물 및 생활풍속계 고분벽화와 5세기 이후 연꽃 장식 고분벽화, 이후시기의 선불혼합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고분벽화 등에서의 불교적인 내용, 그리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지와 불상 일부 등이 그나마 문헌기록을 보충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고구려 불교는 전래 이후부터 왕실 및 귀족세력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였고,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고 지배세력들의 불교에 대한 후원과 인식이 달라지면서 불교의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이 변화되었으며, 지배세력들을 중심으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변화되자 불교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추이를 4세기부터 7세기까지로 한정해볼 때, 고구려 불교사의 전반적

---

1) 정선여, 2007, 『고구려 불교사 연구』

추이는 대체로 4~5세기 불교의 수용과 전개, 6세기에서 7세기 전반기까지 불교의 발전과 확산, 7세기 중반대의 불교정책의 변화와 쇠퇴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는 불교사 내지는 불교문화사 자료로도 이해되기 때문에 삼국유사속에 기록된 고구려 불교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는 것은 고구려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삼국유사의 불교관련 편목 가운데 흥법편과 탐상편에만 나타나고 있는 고구려 불교사와 관련한 편린들을 통해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구려 불교사의 추이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불교사 연구와 관련한 사료 해석에 있어서 다소 의문시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고구려 불교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 더불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고구려 불교의 위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 I.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 검토

### 1. 興法편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

고구려의 경우 신라에 비해 불교 전래, 수용, 공인의 모습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삼국유사 흥법편 순도조려조에 는 고구려 불교 전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A. 順道肇麗 [순도공의 다음에 또한 법심·의연·담엄의 무리가 서로 잇따라 불교를 興하게 하였으나, 고전에는 기록이 없으므로 여기서도 감히 순서를

따라 편집할 수가 없다. 자세한 것은 僧傳에 보인다.] 高麗本記에 이런 말이 있다. 소수림왕 즉위 2년 임신은 곧 동진의 함안 2년이니, 효무제가 즉위한 해였다. 전진의 苻堅이 사신과 순도스님을 시켜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당시 苻堅은 관중에 도읍했으니 곧 장안임] 또 4년 갑술에는 阿道가 동진에서 왔다. 이듬해 을해 2월에는 초문사를 지어 순도를 두고, 또 이불란사를 지어 아도를 두었으니, 이것이 고구려 불법의 시초다. 僧傳에서 二道가 魏에서 왔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실은 전진에서 왔던 것이다. 또 초문사는 지금의 홍국사이고 이불란사는 지금의 홍복사라 한 것도 잘못이다. 살펴보건데 고구려 때의 도읍은 안시성, 다른 이름은 안정홀이니 요수의 북쪽에 있었다. 요수의 다른 이름은 압록인데 지금은 안민강이라 하니 어찌 송경 홍국사의 이름이 있겠는가.

고구려의 불교 전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순도조려조는 승전과 고려본기를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승전은 보통 해동고승전으로 이해되는데, 내용상 약간의 차이는 있다. 특히 二道가 魏에서 왔다는 것을 승전에서 전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해동고승전에는 순도는 秦에서 왔으며, 阿道만이 魏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고려본기도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로 여겨지긴 하지만, 현존하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약간 차이가 있다. 때문에 고려본기를 삼국사기가 아닌 구삼국사와 같은 사서로 이해하기도 한다.<sup>2)</sup> 삼국유사가 해동고승전에 기록된 일부 내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서술하였고, 이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고증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sup>3)</sup> 삼국유사와 해동고승전의 불교 전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한 편인데, 다만 해동고승전에는 순도와 아도의 출자에 대해 상반된 기록이 보인다.

---

2) 신종원, 2006, 「삼국의 불교초전자와 초기불교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4  
3) 이기백, 1987, 「삼국유사 탐상편의 의의」, 『두계이병도박사구순기념 한국사학논총』

B. 고구려 제17대 해미류왕[혹은 소수림왕] 2년 임신년 여름 6월에 秦王 符堅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시켜 불상과 경문을 보내었다. 이에 임금과 신하들은 예의를 갖추어 성문까지 나가 맞아들였으며, 정성을 다해 밋고 공경하니 감격과 경사가 널리 퍼졌다. 왕은 사신을 보내어 감사의 뜻으로서 토산물을 바쳤다. 혹은 순도는 東晉에서 와서 처음으로 불법을 전했다고 하지만, 秦과 晉을 구별할 수가 없으니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중략) 그 뒤 4년에 神僧 阿道가 魏에서 들어왔으며 처음으로 省門寺를 창건하여 순도를 머무르게 하였다. 기록에 말하기를 “성문을 절로 만들었다.”고 하였으니 지금의 흥국사가 그것이며, 뒤에는 잘못 기록하여 省門寺이라 하였다. 또 伊佛蘭寺를 창건하여 아도를 머물게 하였으니, 古記에는 흥복사가 그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海東 불교의 시작이다. (海東高僧傳)

위의 海東고승전에서는 순도의 출자를 秦, 東晉 등으로 기록하고 있고, 아도는 魏에서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아도가 동진에서 온 것으로 적고 있기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순도에 대해서는 전진 출자설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아도는 동진에서 왔을 것이라는 추측이 보편적이다.<sup>4)</sup> 여기서의 문제는 삼국유사의 ‘二道’가 순도와 아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二道’가 위에서 온 것을 비판하면서 전진에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조목 내에서 인식상의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도는 아도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sup>5)</sup>

고구려는 이들 두 외국 승려를 각기 다른 사찰을 지어 거주하게 하였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이들의 국적이 다른 까닭에 각기 불교의례를 행하는 것도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사찰을 지어 머물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省門寺가 省門寺로서 관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4) 이기백, 1954, 「삼국시대 불교전래와 그 사회적 성격」, 『역사학보』 6

5) 신종원, 1993, 「삼국유사 아도기라조 역주」, 『송갑호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명칭이 와전되었다는 것과 이불란사의 명칭은 토어 내지 외국어의 음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일 흉국·흉복으로 개칭되는 사명을 통해서도 전자는 국가와의 관계가 후자는 기복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어, 처음부터 그 출발이 달랐음을 알 수 있게 한다.<sup>6)</sup> 특히 전진의 부견이 사신과 함께 순도를 통해 불상과 경문을 고구려에 보낸 것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를 두고 고구려 초전불교가 공인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7)</sup>

C. (태화 5년 11월) 신사일에 秦王 符堅이 鄴에 있는 궁전에 들어갔다. (중략) 郭慶이 龍城에 이르니 太傅 모용평이 고구려로 달아나고, 고구려는 모용평을 잡아서 秦으로 호송하였다. (『資治通鑑』 102 晉紀 24 海西公 下)

D. 진의 王猛이 연을 정벌하여 무너뜨렸다. 연의 태부 모용평이 도망해오자 왕이 잡아서 진으로 보냈다. (『三國史記』 18 高句麗本紀 6)

위의 기록에 따르면 고국원왕때(370년) 모용평이 고구려로 피난해오자 고국원왕은 즉각 모용평을 잡아서 전진으로 보냈다. 모용선비 세력에게 원한이 있었던 전진 황제 부견에게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모용평을 보낸 것을 보면 전진과 고구려는 당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고국원왕이 371년에 백제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소수림왕이 즉위하자 전진의 부견이 고구려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것은 부견이 고구려에 대해 보답을 한 차원이기도 하고, 신왕의 즉위와 관련한 외교적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당시 부견은 불교를 신봉하였고, 특히 중국 불교 교단을 새로 확립하여 그 수장의 지위에 올라 있던 도안(道安, 314~385)

6) 김복순, 2011, 「4~5세기 삼국사기의 승려 및 사찰」, 『신라문화』 38

7) 김두진, 2011, 「고구려 초전불교의 공인과 그 의미」, 『한국학논총』 36

을 지극히 존중하기도 하였다. 부견이 사절과 함께 공식적으로 불교를 전함으로써 고구려도 별다른 저항 없이 불교를 순조롭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아마 고구려 집권화가 무르익는 시기인 소수림왕대에 전래되었기에 가능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고구려에는 불교 공전 이전 시기에 이미 불교가 전래되어 이해되고 있었으므로 큰 반발이 없었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 불교 전래와 수용이 고구려 국가 혹은 왕실이 어떤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구려가 前燕과의 전쟁이나 後趙와의 교섭과정을 통해 불교가 알려졌을 개연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불교가 국가 혹은 왕실 차원에서 전래, 수용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고구려가 모용평을 전진에 보낸 370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외교사절 파견이 확인되지 않고, 370년에 고구려 사절이 전진에 파견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때 불교 전래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370년에 모용평을 전진에 보낸 것은 모용선비에 대한 과거부터의 원한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점차 부상하고 있었던 전진세력에 대한 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 고구려의 불교 수용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왕권강화나 중앙집권화의 이론체계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여 온 것에<sup>8)</sup> 대해 재고의 여지가 생긴다. 고구려에서 국가 통치에 불교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진의 부견이 불교를 국가 통치의 방편으로 보호하였다는 사실과 연결해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구려 불교 전래에 있어 국가나 왕실이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고등종교로서의 불교를 통해 중앙 집권적 귀족국가로 정비할 필요성에서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결과론적 해석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다. 특히 불교가 왕권정당화 내지

---

8) 이기백, 1954, 위의 글

는 중앙집권화의 이론장치로 역할을 했다거나, 평양지역의 중국계 집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등 불교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근래 비판적 의견도 개진되기도 하였다.<sup>9)</sup> 고구려의 불교수용은 사회 전반에 걸친 일반민과 지배세력 다수의 공감을 전제로 한 새로운 종교 내지는 문화의 수입이지, 왕권강화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구려 불교 전래 및 수용 문제와 관련해 왕권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음을 비판하고, 이른바 국가적 공인 이전의 불교 사전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강조한 견해<sup>10)</sup>도 있다. 이처럼 불교 전래와 수용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4~5세기 고구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고구려의 불교 전래의 기록이 삼국유사 阿道基羅조에 보인다.

E. 또 북위의 중 담시 [혹은 헤시라고도 함]의 전기를 살펴보자. 담시는 관중사람인데 출가한 후로는 기이한 행적이 많았다. 동진 효무제 태원 9년 말에는 경장·울장 수습부를 싸가지고 요동으로 가서 불교를 전파하고 3승을 가르쳐 즉시 불계에 귀의하게 했는데 대개 이것이 고구려가 불교를 듣게 된 시초일 것이다. 의희 초년에는 다시 관중으로 돌아가서 삼보지방을 개도시켰다. 담시는 발이 얼굴보다 희었으며, 비록 흙탕물을 건너더라도 발이 젖지 않았으므로 세상에서는 모두 백족화상이라 불렀다고 한다. (중략) 논평하여 말한다. 담시는 태원 말년에 해동에 왔다가 의희 초년에 관중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곧 이곳에 머물러 있는지 10여년이 되는데 어찌 동국의 역사에 기록이 없는가? 담시가 이미 괴이하여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며, 아도·묵호자·마라난타와 연대 및 사적이 서로 같으니 세 사람중에서 아마도 한 사람이 필경 그의 變名이 아닌가 한다.

9) 조우연, 2011, 「4~5세기 고구려의 불교 수용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탐구』 7

10) 최광식, 2007, 「토착신앙과 불교의 관계」,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위의 기록에 보이는 담시는 고구려 불교 전래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해동고승전에도 동일한 기록이 보인다. 최치원의 曠陽山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銘에도 “서진의 담시가 고구려로 들어온 것은 攝摩騰이 동으로 後漢에 들어온 것과 같았다”라고 적고 있어 담시에 관한 유사한 인식이 있다. 문헌기록상으로 보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및 삼국유사 흥법편 초반부에 불교의 초전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중국측 사료에는 대부분 불교의 초전자를 담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구려의 불교 전래에 대해서는 민간으로의 전래, 왕실로의 전래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sup>11)</sup> 불교의 전래와 전개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기록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도 필요할 것이다. 담시에 관한 기록은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지 오래되었으나 그에 의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불교가 전해져 불교 본연의 면목을 지니게 되었다는 뜻에서 표현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12)</sup> 또한 초전 불교가 격의불교였다면, 담시는 격의불교에서 벗어난 새로운 불교경향을 고구려에 전했다는 점에서 순도와 아도 이후 변화된 중국 불교경향을 고구려에 전해서 불교 전래자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13)</sup> 아울러 담시가 고구려에 온 것을 중시하는 것은 그가 불경과 율장을 가지고 와서 구복적인 성격의 불교가 아닌 본의불교로서의 내용을 고구려에 알렸기에 이것이 사상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내왕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sup>14)</sup> 한편 담시가 북조불교를 전했을 것으로 보고, 담시는 광개토태왕 요동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승려로 파악하기도 하며<sup>15)</sup> 반대로 담시가 중국 남방불교 신앙과 연결되었던 점에서 공인

11) 최광식, 1991, 「신라의 불교 전래, 수용 및 공인」,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2

12) 김영태, 1986, 「高句麗 佛教傳來의 諸問題」, 『佛敎學報』 23; 김영태, 1990, 『삼국시대 불교신앙연구』

13) 김상현, 2007, 「고구려의 불교와 문화」,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14) 김복순, 2011, 위의 글

15) 남무희, 2011, 『고구려 승랑 연구』

불교 신앙의 모습으로 여기기도 한다.<sup>16)</sup> 전체적으로 보면 불교가 수용,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헌기록상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 찬술자는 오히려 담시가 아도, 묵호자, 마라난타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인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 담시가 그 사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에서 별도의 조목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담시가 이들 중 한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담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시와 관련한 기록을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고구려 요동성 지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적 입장에서 요동은 요동성이라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고구려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구려 멸망 후 당으로 이주한 고구려인들의 출신을 표현하면서 여러 묘지명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요동은 지역명으로서의 요동이 아니라 고구려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현, 천남산, 고질, 고죽유 등의 묘지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불교 전래자로 묘사된 담시는 요동이라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고구려에서 396년에서 405년 사이에 활동한 인물로 경장과 율장 수십부를 가지고 고구려에 불법을 전하며 三乘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중심은 고구려 수도인 국내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동고승전에서는 담시가 삼승으로 현수하고 歸戒를 세웠다고 전하고 있음으로 보아 계율을 중요시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담시는 요동 혹은 요동성이 아닌 고구려 중앙인 국내성에서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가 활동했던 광개토왕대 고구려 불교가 삼승과 계율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16) 김두진, 2011, 위의 글

그런데 실제로 고구려 불교 전래는 양고승전과 해동고승전에 東晉 고승 지둔도림(314~366)과 高麗 道人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실을 통해 볼 때 훨씬 이전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문을 道人으로 칭하면서 도교의 道士와 구별하는 것은 남조불교의 특징이라는 견해가 있는 만큼<sup>17)</sup> 고구려 도인에게 글을 보냈던 지둔도림은 격의 불교의 대표적 인물로 고구려 초기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sup>18)</sup> 또한 고구려에는 일찍이 북방불교가 왕실 중심으로 전래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하는데<sup>19)</sup> 前燕 왕실에서 불교가 성행하였고, 慕容氏가 침입하였을 때에 고구려에 불교가 알려졌다는 것이다.<sup>20)</sup> 혹은 미천왕대 후조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고<sup>21)</sup> 낙랑, 대방지역을 통해 고구려에 불교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특히 357년경으로 편년되는 안악 3호분의 천정벽화에 대형의 연꽃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교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여러 정황을 본다면 적어도 4세기 중엽경에 이미 고구려에 불교가 전해졌던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된 것이 소수림왕대로 기록된 것은 당시 이루어졌던 일련의 체제정비의 일환으로 국가차원에서 불교의 전래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 초기불교의 성격이 외교적이고 시책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이해하는 것도<sup>22)</sup>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수림왕대 불교가 전래되어 수도였던 국내성 지역에는 초문사와 이

17) 신종원,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18) 김상현, 2005, 「중국문헌소재 고구려 불교사 기록의 검토」,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김두진, 2011, 위의 글

19) 이용범, 1973, 「북조 전기불교의 고구려 전래」, 『동국대학교논문집』 12

20) 박운선, 2004, 「고구려의 불교 수용」, 『한국고대사연구』 35

21)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표영관, 2008, 「고구려 불교전래 재고」, 『고구려발해연구』 32

22) 신종원, 2006, 「삼국의 불교초전자와 초기불교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4

불란사가 창건되어 순도, 아도 등과 같은 승려들이 주석하였다. 현재 국내성 지역에서 사찰로 보이는 유적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과거 동대자유지가 초문사, 집안역 남쪽에 위치한 석주 건물지를 이불란사로 추정하기도 하였지만<sup>23)</sup>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동대자유지는 그 출토 유물로 볼 때 소수림왕 이후인 비교적 늦은 시기의 유적으로 보이고, 집안역 인근의 석주건물지도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초문사나 이불란사가 창건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보지는 국내성 내부였다고 여겨진다. 현재까지 국내성 인근에서 사찰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확인된 바 없는데, 특히 국내성 외부에서 사찰로 여겨지는 기와를 사용한 유적이 확인되지 않기에 국내성 내부의 기와들이 확인되는 많은 유적들 가운데 사찰 유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국양왕 9년의 불법구복에 대한 승신을 下敎하고, 광개토왕대에 평양에 9사를 창건하는 등 고구려 불교는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고국양왕 9년의 하교에 대해서는 고구려 불교의 공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도 하지만<sup>24)</sup> 대체로 고국양왕대의 불교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 이후 광개토왕대에는 천도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평양에 9사를 창건하기 시작하였다.<sup>25)</sup> 광개토왕대에 평양에 9사가 한꺼번에 창건되었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에 광개토왕부터 평양에 9사가 창건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sup>26)</sup> 아마 장수왕대에 모두 완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27)</sup> 이것은 광개토왕에서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평양천도와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의 완성도 광개토왕에서 장수왕까지 수십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 때 9사가 창건된 것은

23) 문명대, 1998, 「고구려 초창불교사원 초문사 이불란사의 고찰」, 『강좌 미술사』 10

24) 최광식, 1991, 위의 글

25) 서영대, 1981, 「고구려 평양천도의 동기」, 『한국문화』 2

26) 신동하, 1988, 「고구려 사원조성과 그 의미」, 『한국사론』 19

27) 정선여, 2007, 위의 책

평양을 불사로 둘러싸여 부처의 보호를 받는 왕도로서 인식하였던 것이며, 9사는 중앙과 8방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28)</sup> 결국 평양의 9사 창건은 왕권강화를 위해 불교를 숭신할 것을 권장하는 측면뿐 아니라, 국내성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sup>29)</sup>과 더불어 백제의 침입과 연관시켜보면 불교의 호국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건립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30)</sup> 평양 9사와 관련해서보면 현재까지 고구려 시기의 평양 지역의 사찰로는 청암리사지, 정릉사지, 상오리사지, 원오리사지, 낙랑동사 등이 있다. 금강사는 문자왕대에 창건된 절이고 바로 청암리사지가 고구려 금강사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릉사는 북위의 능원제를 수용한 고구려 능원제와 관련하여 창건한 사찰로 보이며, 그 시기도 대체로 문자왕대가 아닌가 한다.<sup>31)</sup> 따라서 현재 평양 9사의 실체는 현재 남아있는 유적으로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과 함께 문맥상 ‘九寺’를 ‘아홉 관청(혹은 관사)’으로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 전개와 더 자연스럽게 맞물린다는 의견도 있다.<sup>32)</sup> ‘寺’의 실체와 관련해, 漢代 이래로 9卿의 官署(관청)를 ‘寺’라 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광개토왕대에 이르러 舊 樂浪지역에 새롭게 관청(九寺)을 창설한 것은 본격적인 평양천도를 위한 중앙관료기관 창건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三國史記 廣開土王 2年 秋8月조에 “創九寺於平壤”로 되어 있다. 만약 그것이 9개의 관청이라는 創이라는 표현보다는 立, 置 등이 어울리는 표현이다. 대체로 삼국사기 용례를 살펴보면 創은 주로 사찰 건립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기록 이외에 다른 사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평양에 9개의 사찰을 창건한 것으로

28) 조경철, 2008, 「광개토왕대 영락 연호와 불교」, 『동북아역사논총』 20

29) 서영대, 1981, 위의 글

30) 신동하, 1988, 위의 글

31)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32) 조우연, 2011, 위의 글

이해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보인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불교전래와 관련하여 아도기라조에 고구려 승려인 목호자 혹은 아도가 등장한다.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이 고구려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F. 阿道基羅 [혹은 我道 또는 阿頭라고도 함]

新羅本記 제4권에 이런 말이 있다. 제19대 눌지왕 때에 사문 목호자가 고구려로부터 일선군에 이르니 郡人 모례 [혹은 모록이라고도 씀] 가 집 안에 굴실을 만들어 있게 했다. (중략) 또 제21대 비처왕때에 이르러 我道和尙이라는 이가 侍者 세 사람과 역시 모례의 집에 왔다. 겉모습이 목호자와 비슷하였으며, 수년 동안 거주하다가 병 없이 생애를 마쳤다. 그 시자 세 사람은 그대로 머물면서 경을 강독하였는데 이따금 불교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주에, 본비 및 제전기와 다르다고 하였다. 고승전에서는 서천축사람이라 하였고, 혹은 오에서 왔다고 하였다.] 我道本碑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我道는 고구려 사람이다. 어머니는 고도령으로서, 정시연간에 조위 사람 아굴마가 고구려에 사신으로 왔다가 고도령과 사통하고 돌아갔는데, 이로 인하여 임신하였다. 스님이 다섯살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출가시켰다. 열 여섯살에는 위나라에 가서 아버지 굴마를 찾아 뵈고, 현창화상의 문하에 들어가 수업했다. (중략) 이렇게 보면, 본기와 본비의 두 설이 서로 어긋나서 같지 않음이 이와 같다.

위 기록은 신라의 불교 전래에 있어서 목호자, 아도 등의 고구려 승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신라의 불교 전래를 고구려와 연관시키고 있는데, 고구려에서 활동하였던 아도와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가 된다. 소수림왕 4년에 와서 이불란사에 주석한 아도와 신라에 불법을 전한 아도의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이에 대해 논하면서 신라에 온 아도는 소수림왕 때 고구려에 온 아도와 동일인으로 보는 海東高僧傳의

설에 따르고 있다. 특히 아도를 鷄林雜傳의 목호자와도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아도기라조는 너무나 설화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 연대와 사실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연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 듯 하다. 아도기라조에는 삼국사기, 아도본비, 해동고승전, 고승전, 속고승전 등 많은 전거가 있지만, 각 전거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삼국유사에는 그 사실성을 논증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삼국사기 찬술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승에 대한 사실성 여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지만, 두 명의 아도를 같은 인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고구려 불교 전래 이후에 흥법편에서 유일하게 고구려 말기의 보덕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는 고구려가 불교를 대신하여 도교를 신봉한 것을 비판하고 결국 고구려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과 연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G. 高麗本記에 이르기를 “고구려 말기인 武德, 貞觀 연간에 國人이 다투어 五斗米教를 신봉하는데 唐 高祖가 이것을 듣고 道士로 하여금 天尊像을 보내어 와서 도덕경을 강의하게 하니 왕과 國人이 그것을 들었다. 곧 27대 영류왕 즉위 7년이요, 무덕 7년 갑신이다. 그 이듬해에 사신을 보내어 唐에 가서 불교와 도교를 배우기를 청하니 당나라 황제가[고조를 가리킴] 그것을 허락하였다. 보장왕이 즉위할 때에 이르러[정관 16년 임인년임] 역시 세 가지 교를 함께 진흥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총애받던 재상 蓋蘇文이 왕에게 말하기를 ‘유교와 불교는 모두 융성하지만 도교는 성하지 못하니 당나라에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도교를 구하자’고 하였다. 당시 보덕화상이 반룡사에 있으면서 도교가 불교와 병행하면 국운이 위태롭게 될 것을 근심하여 여러 번 諫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神力으로 거쳐하던 방을 날려 남쪽에 完山州[지금의 全州]의 孤大山으로 옮겨 살았으니 바로 永徽 원년 경술년 6월이다.[또 本傳에는 이르기를 乾封 2년 정묘년 3월 3일이라 함]

그 후 얼마 못되어 나라가 망하였으니[摠章 원년 무진에 나라가 망했으니 헤아려 보면 경술년보다 19년 뒤] 지금의 景福寺에 있는 ‘飛來方丈’이란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다.[이상은 國史임] 이 사실을 眞樂公은 시를 지어 서체에 남기고 文烈公은 보덕의 전기를 지어 세상에 전했다. (중략) 금이 왕께 아뢰기를 ‘술은 세 발이 있고 나라에는 세가지 敎가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를 볼 때에 다만 유교와 불교가 있을 뿐 도교가 없으므로 나라가 위태롭습니다’하니 왕이 이를 옳게 여겨 당나라에 청해 아뢰었더니 태종이 敍達 등 道士 여덟 사람을 보냈다.[國史에는 “武德 8년 을유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어 불교와 도교를 구했더니 당나라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에 의하면 양명이 갑술년에 죽어서 이 곳에 태어났다면 겨우 나이가 열 몇 살일텐데 총애받는 재상이 되고 왕에게 말하여 사신을 보내고 (도교를) 청했다고 하였으니 그 연월이 반드시 한 쪽은 틀린 것이다. 지금 두 기록 모두 써 둠] 왕이 기뻐하여 절로써 道館을 삼고, 道士를 높여 儒士의 윗자리에 앉게 하였다. 도사들은 국내의 유명한 산천을 찾아다니며 진호하였다. (중략) 발문에 이르기를 “고구려 보장왕이 도교에 혹하여 불교를 믿지 않으므로 스님이 이에 승망을 날려 남쪽의 이 산에 이르렀다. 그 후 神인이 고구려의 馬嶺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머칠 못 가서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한다. 모두가 國史의 기사와 같고 나머지는 모두 本傳과 僧傳에 적혀 있다.

위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를 인용하면서 영류왕 때 고구려에 오두미교가 크게 유행하였고, 당에서 이를 먼저 알고 도사를 파견할 만큼 고구려와 당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唐 고조가 도사로 하여금 天尊像을 보내어 와서 『도덕경』을 강의하게 하니 왕이 직접 들었고, 이후 당에 사신을 보내어 불교와 도교를 배우기를 청하였다는 것이다. 보장왕 즉위년에는 연개소문의 요청에 의해 세 가지 교를 함께 진흥시키고자 도교를 수용하였다. 특히 연개소문은 당의 도교를 통해 불교 교단을 통제하려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보덕은

이에 반대하였던 고구려의 적극적인 도교진흥책에 대한 부정과 반발의 차원에서 평양성으로부터 대보산의 영탑사와 반룡사 등을 전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덕은 반룡사에 주석하고 있으면서도 보장왕에게 도교를 진흥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여러 차례 건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불교정책이 변화되지 않자 650년 고구려를 떠나 열반사상이 유행하던 백제로 이주하게 되고, 완산 고대산에 경복사를 창건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보덕이 양성한 제자들이 이후의 불교를 흥법시킨 인물들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보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삼국유사의 보덕과 관련한 내용은 고구려의 불교 쇠퇴를 말하면서 고구려의 도교 실패가 국가를 멸망하게 이끈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교에 대한 진흥이 고구려 멸망의 원인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가나 왕실이 불교를 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것이다.

보덕이 백제로 이주한 시기는 永徽 원년 경술년(650) 6월과 『本傳』을 인용한 乾封 2년 정묘년(667) 3월 3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해서 650년은 고구려를 떠난 시점으로, 667년은 경복사가 완성되어 이주가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sup>33)</sup> 반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에서 언급한 650년을 정확한 시점으로 상정하면서 667년은 보덕전을 쓴 최치원의 인식에 의한 것으로 최치원이 보덕의 이주와 고구려 멸망을 연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34)</sup> 마지막 부분의 일연이 쓴 찬에는 유교와 도교를 숭상하면 조종을 망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구려왕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아도기라조에도 보이는데, 담시가 도교로부터 불법을 지켜 흥기시키려하였다는 인식이나 도교를 일으킨 최호나 구검지가 재앙을 받아 멸문된 사실을 강조한 것과 동일한 인식이기도 하다.

33) 노용필, 1989, 「보덕의 사상과 활동」, 『한국상고사학보』 2

34) 김주성, 2003, 「보덕전의 검토와 보덕의 고달산 이주」, 『한국사연구』 121

## 2. 塔像편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

삼국유사 탑상편은 탑이나 불상 및 불전, 범종, 사리 등 불교 조형물에 대한 기록으로 불교미술사의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sup>35)</sup> 특히 탑상편에는 유연국토신앙으로부터 이어진 불국토신앙이 많이 나타나 있다. 탑상편의 고구려 불교사는 단 2개의 조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풍부하지는 않다. 요동성육왕탑조와 고려영탑사조는 고구려에 전해진 유연 국토신앙을 알려준다. 요동성에는 본래 인도 아육왕이 보낸 불탑이 묻혔던 자리에 고구려 성왕이 7층 목탑을 세운 내용이고, 고려영탑사는 보덕이 신인의 말을 따라 땅속을 파서 8면 7층탑을 얻은 곳에 세운 사찰이라는 것이다. 땅속에 있었던 불탑은 전불시대의 인도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유연국토신앙을 갖게 하였다.<sup>36)</sup>

고구려가 요동을 완전하게 확보한 시기는 대체로 광개토왕대로 여겨진다. 고구려가 요동을 확보한 이후에 요동성에 탑을 건립하였음은 요동성 아육왕탑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H. 三寶感通錄에 이렇게 기재되었다. 고구려 遼東城 옆에 있는 탑은 옛 노인들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 고구려 聖王이 국경을 순행하다가 이 성에 이르러 오색 구름이 땅을 덮는 것을 보았다. 가서 구름 속을 찾아보았더니 중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곧 없어져버리고 멀리서 보면 도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옆에 三重의 토탑이 있었는데 그 위는 가마술을 엮은 것 같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시 가서 중을 찾아보니 무성한 풀만 있을 뿐이었다. 그곳을 한 길쯤 파보니 지팡이와 신이 나오고, 또 파보니 銘이 나왔는데 위에는 梵書가 쓰여 있었다. 侍臣이 그

35) 이기백, 1987, 위의 글

36) 김두진, 2014,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글을 알아보고 불탑이라고 했다. 왕이 자세히 물으니 侍臣은 답했다. “한나라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은 蒲圖王(원래는 休屠王이라고 했는데 祭天하는 金人이다.)라고 합니다.” 聖王은 이로 인하여 신앙심이 생겨 七重木塔을 세웠는데, 그 후 불법이 전래하자 그 始末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지금 그 높이가 더 줄었고 본 탑은 썩어 무너졌다. 아육왕이 통일했던 염부 제주에는 곳곳에 탑을 세웠으니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중략) 西漢과 三國의 地理志를 살펴보면 遼東城은 압록강 밖에 있으며 漢나라 幽州에 속해 있었다. 고구려 聖王은 어느 임금인지 알 수 없다. 혹 東明聖帝라 하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東明帝는 前漢의 元帝 建昭2년에 즉위하여 成帝 鴻嘉 2년 임인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 때는 漢나라에서도 아직 불경을 보지 못했는데 어찌 해외의 陪臣이 벌써 梵書를 알 수 있을까. 그러나 부처를 蒲圖王이라 했으니, 아마 西漢時代에도 西域 문서를 혹 아는 이가 있었기에 梵書라 했을 것이다.

위의 기록은 道宣(596~667)이 664년에 편찬한 集神州三寶感通錄의 기록과 거의 동일한 관계로 그 전거는 집신주삼보감통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서는 三寶感通錄이라고 적고 있다. 내용은 고구려 성왕에 의해 요동성에 아육왕탑이 건립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이는 고구려 성왕과 관련하여 삼국유사 편찬자들은 성왕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까지 언급되고 있는 동명성왕은 아닌 것을 지적하였는데, 동명성왕 당시에는 불교가 전래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과거 삼국유사의 아육왕탑과 七中木塔의 기록에 대해서 말해시기 사실의 誤傳으로 인식하기도 하였고<sup>37)</sup>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은 성왕을 동명성왕이라고 전제하면서 목탑의 누각식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고구려에서 그 시기에 7층의 목탑을 세울 수 없다는 논리로 아육왕탑이 고구려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요동성 아육왕

37) 고유섭, 1967, 『한국탑과의 연구』

탐이 실제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고구려 성왕이 동명성왕이 아닌 후대의 고구려왕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고구려 성왕에 대해서는 고국양왕이 요동으로 진출한 후 순행하면서 만든 탐일 가능성을 지적된 바 있으나<sup>38)</sup> 대체로 학계에서는 성왕은 광개토왕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이다.<sup>39)</sup> 또한 ‘성왕’은 轉輪聖王을 의미하는 것으로 5세기 초반경의 광개토왕으로 보기도 한다.<sup>40)</sup> 그러나 전륜성왕으로 광개토왕이라고 확정하기보다는 성왕의 실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고구려 왕호가 장지+훈적+치세+존호 순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경우<sup>41)</sup> 고구려의 왕호 속에 성왕, 혹은 성태왕 혹은 호태성왕 등으로 불린 고구려 왕을 특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고구려 왕호에는 대체로 聖王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국원왕이 모두루묘지에서는 ‘국강상성태왕’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광개토왕도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 혹은 ‘국강상대개토지호태성왕’ 등으로 불리었다. 이후의 왕들의 묘호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성왕이 국경을 순행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요동이 완벽하게 확보된 광개토왕 이후 시기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광개토왕일수도 있고, 그 이후의 장수왕을 비롯한 다른 왕일 수도 있다. 특히 아유왕탐이 존재한다고 할 경우 요동성의 모습이 완전하게 갖춰진 이후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광개토왕대에 요동성이 모습을 완전하게 갖추었던 상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점을 특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북위시기까지 이전까지만 해도 제왕과 전륜성왕을 연관지을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데, 5세

38) 김선숙, 2004, 「삼국유사 요동성육왕탐조의 성왕에 대한 일고」, 『신라사학보』 1

39) 문명대, 1983, 위의 글; 신동하, 1988, 위의 글; 정선여, 2007, 위의 책; 윤세원, 2014, 「삼국유사 요동성육왕탐조에 대한 일고찰」,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5

40) 조경철, 2008, 위의 글; 윤세원, 2014, 위의 글

41) 정호섭, 2011, 위의 책

기 초반에 광개토왕을 轉輪聖王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당시 장수왕에 의해 건립된 광개토왕비에도 불교와 관련하여 신성성을 부여한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데, 광개토왕이 전륜성왕으로 인식되었다면 비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광개토왕비에 광개토왕의 묘호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으로 적고 있는 바, 불교적 내용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성왕을 전륜성왕으로서의 광개토왕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아육왕탑과 관련하여 인도의 설화에 의하면 석가모니께서 열반에 드신 후 다비를 하고 나온 사리는 모두 8등분 하여 8개의 탑을 세웠다. 그런데 그 후 100년 정도 뒤에 아소카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하고 이들 8개의 탑에 있던 사리들을 꺼내어 제국 영토에 골고루 도합 8만4천개의 탑을 세워 그 안에 각각 분산하여 봉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도에서의 설화는 이 8만4천개의 탑이 모두 인도 안에 세워진 것이었을 뿐 중국에까지 세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들 수많은 탑이 세워진 곳 중에 중국이나 고구려가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는 물론 후대에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만들어내었을 것이다. 集神州三寶感通錄에 등장하는 아소카왕이 세운 탑은 돌과 비슷한 재질로 만들었고, 높이는 1.4척, 그리고 5단의 상륜부를 가졌으며, 그 모습이 인도와 호탄의 불탑과 비슷했다고 한다. 고구려 왕이 발견한 요동성의 아소카왕 탑은 3층의 토탑이었다. 그 위에 술을 얹어놓은 것 같은 구조물이 있다고 했으니 이는 ‘집진주삼보감통록’에서 인도나 호탄의 탑과 같다는 설명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 왕은 이 탑을 보호하기 위해 7층의 목탑을 건립하였는데, 아마 8면 7층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고구려에서 주로 8각형의 탑을 세웠는데, 고려영탑사조에도 8면 7층탑이 보인다.

요동성은 요양에 있었던 고구려의 거점 성 가운데 하나로 현재는 그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요동성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는

데, 요동성층에 남아있는 요동성도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요동성층은 평안남도 순천시 북창면 용봉리에 있는 고구려 벽화무덤으로 무덤 내부에 성곽도가 그려져 있고, ‘遼東城’이란 묵서명이 있어 이 무덤을 요동성층이라 부른다. 앞방의 남벽 중앙에 성곽도가 그려져 있다. 대체로 무덤 축조 및 벽화제작 시기는 4개의 현실, 축실과 두 개의 널길이 달린 전실 등 중국 遼陽 三道壕古墳과 같은 모습으로 4세기 후반경으로 보기도 하지만, 고구려가 요동 지배를 굳힌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인 5세기 전반경에 축조된 무덤으로 생각된다.<sup>42)</sup> 성곽의 모습은 중앙에 내성·외성의 이중성벽을 가진 것인데, 내성 내부에는 골기와를 얹은 이층집과 삼층누각이 그려져 있다. 외성 내부에는 서쪽문 바깥에 단층집이 한 채씩 있는데, 그 오른쪽 집 밑에 해서로 ‘遼東城’이라고 내려쓴 묵서가 있다. 요동성의 안과 밖에 고층 누각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탑을 묘사한 것이 아닐까 추정되기도 한다. 특히 요동성 밖에 있는 누각 형태의 건물이 요동성 육왕탑일 개연성이 지적된 바 있다.<sup>43)</sup> 요동성 옆에 육왕탑이 있다고 한 삼국유사의 기록을 볼 때 위치상 내성의 탑보다는 성 밖의 탑이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요동성층이 만들어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 사이에 탑이 조영되지 않고 이후에 탑이 조영되었을 개연성도 있고, 벽화에 묘사된 탑이 7층 형태로 보이지 않아서 이 탑을 요동성 육왕탑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삼국유사에는 인도 아육왕과 관련한 내용이 고구려와 신라에 각각 등장한다. 삼국유사의 요동성 육왕탑조에서 아육왕탑이 세워진 곳이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고구려에 불교 연원이 오래된 것으로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아육왕탑이 발견되는 과정에 한 승려의 모습이 가까이 가면 사라지고 멀

42) 정호섭, 2011, 위의 책

43) 장상렬, 1967, 「요동성탑」, 『고고민속』 1967-1

리서 보면 나타나는 신이한 정황이 묘사되었는데, 이것은 아육왕탑의 출현 상황에 신비함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삼국유사에서도 인용된 唐의 道宣이 편찬한 集神州三寶感通錄에 있는 각종 불탑이나 불상 관련 설화에서 많이 확인된다. 아육왕탑이 중국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설화는 東晉 이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동성육왕탑과 관련된 설은 동진 시기 이후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sup>44)</sup> 한편 삼국유사에는 아육왕과 연관된 내용이 황룡사장육조에서 보인다. 아육왕이 보낸 불상과 모본과 금이 경주의 동쪽 해안인 울산 부근에 도착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도 결국은 중국을 통하여 수용된 연기설의 연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육왕이 사망한 수 백년이 지난 뒤 인도의 불상이 신라에 도착하였다고 함으로서, 인도에서 크게 불사를 일으킨 아육왕의 후광을 받아서 신라의 불교도 발전하게 된다고 믿는 신라인의 사상적 일면을 반영한 것이다.<sup>45)</sup> 따라서 삼국유사에 수록된 아육왕과 관련된 2건이 수록된 의도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삼국유사 탑상편에 수록된 또 다른 고구려 관련 기록은 영탑사에 대한 것이다.

- I. 高僧傳에 보덕의 자는 智法이며, 고구려 용강현의 사람이라고 했다. 자세한 것은 이 아래의 本傳에 나타나 있다. 스님은 늘 평양성에 살았는데, 山方 노승이 와서 불경을 강연해주기를 청하니 보덕은 굳이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가서 涅槃經 40여 권을 강연했다. 강연을 마치고 성 서쪽 大寶山 바위굴 밑에 이르러 참선을 했다. 神人이 와서 청하기를 이 곳에 사는 것이 좋다고 하고 지팡이를 앞에 놓고 땅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땅 속에 8면 7층탑이 있을 것이다.” 그 땅을 파보니 과연 그러했다. 그로 인하여 절을 세워 영탑사라 하고 그곳에 살았다.

44) 신동하, 2000, 「新羅 佛國土思想의 展開樣相과 歷史的 意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5) 김리나, 1979, 「皇龍寺의 丈六尊像과 新羅의 阿育王像系佛像」, 『진단학보』 46·47

위의 기록에 의하면 보덕은 고구려 용강현 출신으로 평양성에 거주하였다. 보덕은 열반경 40여권을 강연한 정도로 열반경에 정통하였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덕이 열반경을 강연한 시기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연개소문 집권기로 이해하는가 하면<sup>46)</sup> 영류왕때의 일로 보기도 한다.<sup>47)</sup> 보덕이 강연한 열반경 40여권은 421년에 담무참에 의해 번역된 열반경 40권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강연을 마친 후 보덕은 대보산 바위굴 아래에서 참선에 전념하였고, 여기에서 신인이 대보산에서 거하고 탐의 존재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보덕은 평양성을 떠나 중앙과 약간 떨어진 대보산에 거하면서 영탑사를 창건하였고, 여기에 8면 7층탑을 세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당시 고구려의 분위기가 도교가 수용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평양성과 일정부분 떨어진 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대보산이 어디에 있는 산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평양성을 떠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보덕은 이후 반룡사로 다시 옮겼다. 반룡사는 보통 평남 용강군에 위치하였던 사찰로 여겨지는데, 보덕은 대보산 영탑사를 떠나 반룡사로 다시 옮겨 주석하게 되었다. 반룡사로 옮긴 시기는 연개소문 정변 직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룡사가 용강군에 있는 사찰이라면 원래 출신지로 돌아간 것이 된다. 아마 출가한 사찰로 되돌아와서 주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차례 왕에게 불교를 신봉할 것을 간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연개소문이 불사를 도관으로 바꾸고 도사들이 전국의 산천으로 돌아다니며 진압하는 분위기에서 불교탄압이 심화되자 보덕은 결국 고구려를 떠나 백제지역으로 이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개소문이 불교를 탄압하고 보덕이 고구려를 떠나 백제지역으로 이주하자 고구려 불교는 더욱 쇠퇴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당시 보덕이 고구

---

46) 노용필, 1989, 위의 글

47) 정선여, 2007, 위의 책

려 불교계의 중추적 인물 중의 한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보덕이 백제지역을 선택하였던 이유로는 보덕이 백제 불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고구려와 백제관계가 우호적이었기 때문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제자였던 백제 출신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명덕의 역할이 강조될 수도 있다.<sup>48)</sup>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보덕은 신라와 연개소문 정권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고, 원효나 의상과도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도 여겨지지만, 결과적으로 보덕은 백제의 거점 지역이었던 완산 지역으로 옮겼다. 보덕이 완산 지역으로 옮긴 후 경북사를 창건하였다고 흥법편에 전하고 있는데, 동국여지승람 全州府 佛宇條에 “景福寺 在高達山 寺之飛來堂 有普德大士畫像”라는 것으로 볼 때 경북사가 있었다고 한 이孤大山은 고달산으로 볼 수 있다. 경북사는 전북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고달산에 있던 사찰로 창건 이후 원효, 의상이 이 곳에서 열반경과 유마경을 배웠으며, 보덕의 眞影이 고려 때까지 봉안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보덕이 많은 제자들도 양성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J. 보덕법사에게는 뛰어난 제자 열한 사람이 있었는데, 無上和尙과 그의 제자 金趣 등은 金洞寺를 세웠으며, 寂滅, 義融 두 스님은 珍丘寺를 세우고 智藪는 大乘寺를 세우고 一乘과 心正, 大原 등은 大原寺를 세우고 水淨은 維摩寺를 세우고 四大와 契育 등은 中臺寺를 세우고 開原和尙은 開原寺를 세우고 明德은 燕口寺를 세웠다. 開心과 普明은 또한 傳이 있는데 모두 『本傳』과 같다.

보덕이 백제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 단신으로 옮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고구려에서부터 양성한 제자도 포함되

48) 노용필, 1989, 위의 글; 정선여, 2007, 위의 책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들 11명의 제자들이 창건한 사찰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로 전북지역에 있는 사찰로 여겨지며<sup>49)</sup> 통일신라 불교계를 이끌어간 것으로 여겨지는 개심과 보명도 있다. 고구려 불교가 백제지역인 완산을 중심으로 하여 이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에 670년에 금마저에 보덕국을 세운 것과 연관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sup>50)</sup>

삼국유사에 고려 영탑사조가 서술된 것은 보덕과 관련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8면 7층탑이라는 구체적인 탑의 존재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인이 나타나 보덕에게 알려준 탑으로 상징되긴 하였지만, 결국은 보덕과 보덕을 따르던 세력들이 창건한 사찰과 석탑이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보덕은 고구려와 백제뿐만 아니라 이후 신라의 불교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특히 삼국유사에 관련된 조목들에 수록될 수 있었을 것이다.

## II.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의 한계

삼국유사는 왕력, 기이, 흥법, 탑상,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 등 9개의 편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로 삼국유사는 당시 중국과 고려에서 편찬된 많은 사서나 승전류를 기본으로 하여 저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편찬된 사서나 승전류 가운데 삼국유사와 동일한 체제를 갖춘 것이 없기에 삼국유사 체제는 독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삼국유사의 왕력이나 기이편은 주로 역사와 관련한 내용이고,

49) 김방룡, 2003, 「신라 통일기 불교사상의 전개와 보덕의 열반중」, 『보덕화상과 경복사지』

50) 김수태, 1994,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 지배」, 『이기백선생교회기념한국사학논총(상)』

나머지 편목은 불교관련 내용이다. 삼국유사는 어떤 면에서는 삼국사기보다 잃어버린 고대사의 잔영을 더 충실하게 담고 있는 것이라 할 만하다. 삼국유사라는 서명에서 보듯이 정사에 빠진 사실을 기록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실제로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기사에서 빠진 부분을 채집하여 신고 그와 관련된 사항은 고려 중엽까지의 사실을 첨가하고 있다. 한편 삼국유사는 불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로 삼국의 불교 신앙을 서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흥법, 탑상, 신주, 피은, 효선편 등이 해동고승전에도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것은 현재 전해지는 해동고승전이 일부만 전하고 있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편명은 양고승전·당고승전·송고승전 등 중국 고승전류에는 보이지 않는 편명이기에 삼국유사의 체제상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삼국유사에 고구려 불교와 관련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고구려사와 관련 내용이 언급된 조목이 전체 조목의 1/5을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삼국시대로만 한정해 보면 『삼국유사』에 고구려 관련 내용은 분량상으로 1/3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sup>51)</sup> 이것은 고구려사와 고구려 불교사에 대한 삼국유사 편찬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삼국유사의 고구려 불교사 서술은 대체로 고구려가 해동으로 불교를 전래하였다는 역할을 강조한 내용과 불교를 배척하고 도교를 중요시한 것이 멸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입장에서 승불에 대한 강조차원 그 이상은 아닌 듯하다. 이 점은 다분히 삼국유사 찬자들의 고구려 불교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고구려의 불교 전래는 신라에 비해 그 연원이 오래되었고, 신라 불교도 고구려를 통해 전래되었다. 때문에 고구려의 불교 역시 신라와 비교하

51) 하정용, 2009, 「삼국유사 고구려관련 기사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학사학보』 20

여서 그 융성한 정도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작 삼국유사에 기록된 고구려 불교에 대한 서술은 매우 빈약하다. 周書 고려조에 “敬信佛法”한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고구려에서의 불교는 매우 보편적이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먼저 동진의 지둔 도림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고승전과 해동고승전 釋亡名傳에 지둔 도림이 고구려의 도인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에서는 이를 亡名으로만 주석상에 그 이름만 명기하고 어떤 내용도 기술하지 않았다. 아울러 순도보다 그 순서를 뒤에 두고 있다.

K. (지둔은) 그 후 고구려 도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였다. 상좌 竺法深은 중주 유공의 제자인데 타고난 덕이 곧고 우뚝하여 도인과 속인들이 모여 들고 있다. (高僧傳 권 4 竺潛深傳)

L. 지둔공은 중국에서 덕망이 높은 분으로서 그와 더불어 말을 통하고 사귀는 이들은 반드시 훌륭한 인재와 뛰어난 학자였을 것인데, 하물며 외국의 선비일지라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와 같은 편지를 보냈겠는가? (海東高僧傳)

지둔 도림(314~366)은 동진의 고승으로 그가 고구려의 도인과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그 순서도 당연히 순도보다는 앞에 두어야 한다. 고구려에서 372년 이전에 불교가 이미 전래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민간에 불교가 이미 전래되어있었던 고구려의 사정을 삼국유사는 공식적인 불교 전래의 주석에 亡名이라고 적고 있을 뿐이다.

한편 담시와 관련해서도 중국측 기록들은 고구려에 불도를 알게 한 시초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高僧傳, 魏書, 法苑珠林, 北山錄 등과 海東高僧傳에 담시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는데, 최치원 역시도 지증대사비문

에서 동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최치원 당시에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이는 순도의 불교 전래가 고구려측 전승의 문헌 기록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을 리가 없었고, 또한 중국 문헌에 비교적 밝은 사람이었기에 중국측 전승 기록에 의존해 이러한 인식을 보였을 개연성이 높다. 대체로 광개토왕대까지 고구려 고유의 국내전승 문헌기록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광개토왕대의 기록까지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상기하면<sup>52)</sup> 순도의 불교 전래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당시의 불교 전래가 고구려 불교의 시작이라는 것은 해동고승전에서도 다음과 같이 부정된 바 있다.

M. 양고승전에서는 이것을 고구려 불교의 시작으로 삼고 있다. 그 때문 광개토왕 5년으로 신라 나물왕 41년이며, 백제의 아신왕 5년에 해당하여 진나라의 부견이 경전과 불상을 보낸 지 25년 뒤였다.(海東高僧傳)

삼국유사에서도 일연은 담시가 아도, 목호자, 마라난타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한사람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연의 이러한 추측은 중국측 문헌기록들로 살펴볼 때 인정되기는 어렵다. 일연은 담시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당시는 여러 중국 문헌기록에 그 행적이 매우 분명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인물이기에 일연 스님의 논평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한편 삼국유사 순도조려조에는 고구려 불교를 흥하게 한 인물들이 나열된 세주가 달려있다. 이들은 모두 세주에만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52) 정호섭, 201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4~5세기 기록의 검토』, 『신라문화』 38

N. 順道肇麗 [순도공의 다음에 또한 범심·의연·담엄의 무리가 서로 잇따라 불교를 興하게 하였으나, 고전에는 기록이 없으므로 여기서도 감히 순서를 따라 편집할 수가 없다. 자세한 것은 僧傳에 보인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불교사의 전개와 관련해 順道-法深-義淵-曇嚴을 기록하고 있는데, 승전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의 승전을 해동고승전이라고 볼 때, 해동고승전에는 順道-亡名-義淵-曇始의 순서로 서술되고 있다. 두 기록을 비교해 볼 때 범심-망명과 담엄-담시가 서로 연관되고 있다. 즉 범심과 망명이 동일인이고, 담엄과 담시도 동일인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sup>53)</sup> 그런데 해동고승전에도 범심과 담엄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여타 기록에도 이들 두 승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해동고승전에서의 순도, 망명, 담시 등은 고구려 불교 전래 및 수용시기의 인물들이고, 의연은 6세기 중반 이후 평원왕대에 활동했던 인물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 亡名은 동진의 고승 지둔과 서신교류를 하던 고구려 도인으로서 소수림왕대 이전 이미 고구려에 불교가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바, 순도보다 앞선 시기에 활동하였던 인물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亡名은 그것 자체가 이름이었다기 보다는 이름이 실전된 고구려 도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담시는 광개토왕대에 요동으로 와서 활동하던 승려로 기록되어 있다. 만약 삼국유사의 세주의 기록이 순도-범심-의연-담엄의 순서를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해동고승전의 기록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시간순으로 보면 망명이 순도 앞에 기술되어야 하고, 담시도 의연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하였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유사와 해동고승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승려인 범심과 亡名, 담엄과 담시가 동일인인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서로 다른 인물들로 상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삼국유사 찬자들이 이들을

---

53) 남무희, 2011, 위의 책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동고승전에 기록된 승려들과 삼국유사에 기록된 승려들의 이름이 다른 것이 전거 기록의 차이였다면 이를 설명하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삼국유사는 해동고승전과는 달리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심지어 法名の 차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왜 이들 승려들에 대한 조목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이다. 특히 의연의 행적은 해동고승전에도 수록되어 있는 만큼 삼국유사 편찬자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연이 조목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적어도 고구려 불교 전래 이후 불교의 전개와 발전을 논하기 위해서는 의연에 대한 서술은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의연은 고구려 불교 발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인물로 생각된다. 의연은 海東高僧傳 釋義淵傳과 續高僧傳 法上傳에 그 행적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연은 고구려 평원 왕대의 승려로 576년 北齊로 유학하여 정국사에서 불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 대승상 왕고덕은 불법을 숭상하였고, 이 당시 고구려에서는 국가적으로 불교를 숭상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의연은 법상의 가르침을 받아 이들에 관한 해답을 얻은 뒤 귀국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였다. 그가 알고자 하였던 경전들은 대승불교 문헌 중에서도 가장 철학적으로 깊이 있고, 당시 중국에서도 번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들로서 고구려의 교학수준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특히 의연은 중국 地論宗 南道派의 법상에게서 수학하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를 근거로 지론종을 고구려에 소개한 인물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논서들은 후대의 신라 학승들이 그 철학적 전거로 삼아 빛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해동고승전과 속고승전에 의해 그 행적이 비교적 뚜렷하고 고구려와 신라 불교 발전에 공헌한 인물이 삼국

유사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삼국유사 찬자들의 고구려 불교 인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 불교에 대해 삼국유사 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즉 불교 전래와 아육왕과의 연기 그리고 도교 신봉이 가져온 부정적 결과만이 강조되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삼국유사의 불교사 서술은 대단히 신라 중심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고구려 승려 가운데에서도 중국으로 구법활동을 한 승려들이 다수 확인된다. 아울러 고구려에서도 사신을 보내어 불탑을 일으켜 공양하고자 하여 부처님의 사리를 청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sup>54)</sup> 고구려 출신의 승랑은 燕에서 八宿의 제자에게 대승법문을 배우고, 이어 중국 강남지역으로 구법은 신삼론학을 연구하였다. 그것이 제자인 승전, 승전의 제자인 법랑, 법랑의 제자인 길장에 이르러 삼론학으로 집대성되었다.<sup>55)</sup> 고승전 권8 法度傳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O. 승랑은 본래 요동사람으로 널리 배우고 생각하는 힘이 두루 해박하여 모든 경전과 율장을 강설할 수 있었으며, 화엄경과 삼론은 그가 가장 대가의 위치에 있었다.(高僧傳 권 8)

위의 기록을 통해 승랑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중국의 삼론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화엄과 삼론학의 대가였던 고구려 출신 승랑에 대한 기록도 삼국유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물론 삼국유사가 해동 불교를 대상으로 서술한 측면이 있지만,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인 승랑에 관한 내용이 梁高僧傳에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삼국의 불교사라기보다는 중국 불교사라고 인식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

54) 廣弘明集 권 17

55) 남무희, 2011, 위의 책; 김상현, 2005, 위의 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 승려 가운데 백제로 망명해서 활동했던 보덕이 특히 주목된 이유는 불교를 숭상하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보덕의 문하의 인물들이 이후 불교 발전에 기여하여 삼국유사 찬자들과 제자의 양성을 통해 신라 불교 발전에도 기여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고구려 승려였던 惠亮의 경우도 신라에서의 불교 발전에 대한 행적이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그 행적이 기술되지 않고 慈藏定律조에 혜량을 國統으로 삼은 내용만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와 백제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고구려 승려였던 도림에 대한 언급 역시 확인할 수 없다.

속고승전에는 7세기 전반에 고구려로 갔던 말갈인 帝示階가 습득했던 고구려 동불상에 대한 영험에 관한 설화도 전하고 있다.

- P. 정관년중에 요서 유성의 말갈 사람 제시계는 18세에 고려로 도망해 들어갔다. 그는 2촌 정도의 동불상을 습득했지만, 어떤 神明인지 알지 못한채 가족부대 속에 넣고서 매양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을 때면 꺼내서 제사하였다. 그는 고려에 붙잡히자 자신은 북쪽 변방의 말갈인임을 말했지만, 이를 믿지 않고 정탐꾼으로 보고 三刀로 내리쳤으나 피부와 살이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 이에 그를 신인으로 의심하여 어떤 도술이 있는지 물었다. “없습니다. 오직 신명에게 공양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그것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불상이다” 이로 인하여 본말을 설명하고서 불상의 등에 삼도의 흔적이 있음을 보았다. (續高僧傳 권 25)

이러한 설화는 고구려 불교사와 관련하여 삼국유사 탐상편 혹은 감통편에 소개될 만한 불교관련 설화로 볼 수 있다. 속고승전에 기록된 이러한 기록도 삼국유사에는 수록되지 못하였다. 물론 이 설화에 고구려 동불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 없긴 하지만, 이 역시 말갈인에 관한 것이어

서 수록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밖에 중국으로 구법하여 그 행적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고구려 승려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陳에서 활동했던 有部宗의 智晃<sup>56</sup>, 北周에서 활동했던 定法師<sup>57</sup>, 6세기말에서 7세기 초반 중국에서 삼론학에 정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實法師<sup>58</sup>와 印法師<sup>59</sup>, 그리고 수나라에서 천태종과 관련이 있는 波若<sup>60</sup>, 그리고 7세기에 수와 당에서 삼론학과 관련이 있었던 慧灌<sup>61</sup>과 道登<sup>62</sup>, 그리고 당에서 활약한 선종계통의 智德 등이 그들이다. 또한 해동고승전과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보이는 玄遊<sup>63</sup>도 주목된다. 삼국유사에는 이러한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고구려 승려에 대한 어떤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들이 고구려 불교사에서 의미있는 인물이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의미있는 인물들로만 인식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해동고승전과 속고승전 등에 이들 인물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수 수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 찬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이유는 서명에서 삼국유사라 삼국의 이야기만을 쓴다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찬자들이 신라 중심의 불교사 정리가 가장 우선시 되지 않았나 여겨지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는 대표적인 신라 승려들의 경우 중국에서의 활동이나 심지어 천축국으로 구법을 떠난 스님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 승려들의 경우 여러 고승전에 보이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리하지 않은 것도 고구려 관련 국내 전승의 사료가

---

56) 續高僧傳 권 18 釋曇遷傳

57) 古詩紀 권 117

58) 續高僧傳 권 13 釋慧持傳; 권 15 釋法敏傳

59) 續高僧傳 권 13 釋靈睿傳

60) 續高僧傳 권 14 釋智越傳

61) 本朝高僧傳 권 1

62) 本朝高僧傳 권 72

63) 海東高僧傳 권 2 玄遊傳; 大唐西域求法高僧傳

없었던 것에도 기인하는 바 있겠으나, 무엇보다 신라 중심적인 불교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 고구려 불교사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고구려 승려 가운데 일본에서 활동하였던 인물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평원왕대 惠便<sup>64</sup>과 法明<sup>65</sup>, 영양왕대 일본에서 활약한 후 고구려로 다시 돌아와 입적한 惠慈<sup>66</sup>, 영양왕대 활동했던 僧隆·雲聰·曇徵·法定<sup>67</sup>, 7세기 중엽에 일본에서 행적이 보이는 大法師<sup>68</sup>, 道顯<sup>69</sup> 등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삼론학 관련 승려인 慧灌과 道登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록들은 대체로 일본서기에 집중되어 있는 바 이들의 활동 역시 삼국 불교사를 다룬 삼국유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특히 혜관과 도등 같은 경우는 고구려 - 중국 -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보면 구법과 전법을 위해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무대로 생각하며 활동했던 고승들이었던 것이다.<sup>70</sup> 이 역시 동아시아 불교의 큰 흐름속에서 삼국의 불교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중국 불교 내지는 일본 불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구려 불교사를 보면 고구려로 불교를 전래한 순도, 아도, 담시와 신라에 불교를 전파한 묵호자 등은 중국으로부터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 고구려 혹은 신라로 이주하여 산 승려들이다. 이들은 고구려에 불교를 전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구려 불교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한 이주민들이었다. 고구려 불교사를 바라보았을 때 중국으로부터 이주한 이들의 역할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들은 중국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고구

64) 日本書紀 권 20

65) 元興寺緣起

66) 日本書紀 권 22; 本朝高僧傳 권 67

67) 日本書紀 권 22

68) 日本書紀 권 25

69) 日本書紀 권 26

70) 김상현, 2005, 위의 글

려로 이주하여 전범한 승려들이다. 아울러 공식적으로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이주민 세력들에 의해 불교가 도입되었을 개연성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안악 3호분의 연꽃이 그려진 천정 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4세기 후반경에 고구려로 이주하여 살면서 408년경에 사망한 덕흥리 고분의 주인공인 유주자사 진이 釋迦文佛의 제자를 자처하는 모습에서 민간에 불교가 이들 이주민들에 의해 확산되었을 정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여러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에서 중국으로, 고구려에서 중국을 거쳐 다시 일본으로 이주하며 살았던 승려들의 모습도 확인된다. 고구려 승려 가운데에는 중국 혹은 서역으로 구법승으로 가서 귀국하지 않고 한평생 이주민으로서 산 승랑, 실법사, 인법사, 파야, 지황, 현유 등과 같은 승려도 있다. 중국에서 구법을 통해 고구려로 귀국한 승려도 있고, 다시 일본에서 전법활동을 하였던 혜관, 혜자, 도등 등의 승려도 있다. 아울러 처음부터 일본에 전범한 것으로 여겨지는 해편, 법랑, 승융, 운충, 담징, 법정, 대법사, 도현 등과 같은 승려도 있고, 다시 일본에서 전범한 후 고구려로 돌아와 입적한 혜자와 같은 승려도 있다. 아울러 신라로 망명하여 국통이 된 혜량이나 백제로 망명한 보덕과 같은 고승들도 확인된다. 이처럼 고구려 불교사를 바라볼 때 다양한 삶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승려들의 모습을 동아시아사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국적이나 종족의 의미보다는 그들이 살아간 구법승, 전법승으로서의 개인적인 삶 자체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많은 고구려인들이 이주민으로 살았던 사실들이 다수 확인되듯이, 고구려 승려들도 이주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sup>71)</sup> 종족이나 국적 문제가 그들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결코 아니었고, 이들을 통해 고대사회의 이주인이면서 구법과 전법을

---

71) 정호섭, 2017, 「고구려사에 있어서의 이주와 디아스포라」, 『선사와 고대』 53

위해 동아시아 속에서 활동한 국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활동한 승려들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고구려 불교의 해외진출 혹은 중국 불교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만 바라 보기는 곤란하다. 이들은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지극히 개인적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에서 국적이나 종족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이주민으로서 삶을 살았다. 다만 이들의 활동은 고구려 불교가 동아시아 불교의 큰 흐름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 승려들도 동아시아 불교문화권 속에서 함께 참여하였고 삼론학과 같은 경우 동아시아 불교에 상당한 기여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맺음말

삼국유사의 불교관련 내용이 대부분 신라와 관련한 것이지만, 고구려 불교사와 관련하여서는 흥법편과 탐상편에 일부 조목이 남아있다. 고구려의 불교사와 관련하여 삼국유사 편찬자들의 관심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불교전래에 있어서의 고구려의 선구적 역할과 고구려 멸망기 도교에 반대하고 이후 신라와 백제의 불교발전에도 기여하였던 보덕을 주로 주목한 것 같다. 또한 아유왕과 관련하여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도 불교와 깊은 인연이 오래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과 함께 신라 불교에 대한 지나친 중시는 삼국유사 속에 그려진 고구려 불교사를 살펴볼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불교사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의 기록은 너무나 소략한 편이다. 삼국유사에는 고구고구려 불교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여겨지는

義淵 등 많은 승려들에 대한 내용도 수록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고구려 불교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살피지도 못한 한계도 있다. 국내외 고승전류에서 확인되는 이들 승려들에 대해 삼국유사 찬자들은 삼국 불교 다시 말하면 해동 불교의 전개와 발전과는 다소 무관한 존재들로 인식한 듯하다. 그러나 많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중국, 일본, 신라, 백제 등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여러 문헌에도 확인되는데, 이들은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참여하고 일정부분 공헌하기도 하였다. 한국 고대에 있어서도 이주는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고, 구법이나 전법을 위해 동아시아속에서 활동한 많은 승려들의 모습도 찾아진다. 또한 고구려 불교사와 관련한 여러 승려들이 여러 고승전 등에 수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불교의 흐름 속에서 함께했던 고구려 불교사의 틀 속에서 설명되지 못한 한계도 가지고 있다. 고구려는 중국과 근접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당시 유행하던 새로운 사상적 조류가 곧바로 전해졌고, 다양한 계통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다종족국가를 이루면서 성장하였다. 때문에 고구려 불교도 동아시아 불교로서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보편성은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다수의 고구려 승려들의 전기가 고승전을 비롯한 여러문헌에 수록되도록 한 힘이었다. 향후 고구려 불교사의 편린을 담은 삼국유사와 여러 문헌기록과 실물자료 등을 통해 고구려 불교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고구려 불교가 가지는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을 좀 더 명확하게 구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사가 자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기백, 1954, 「삼국시대 불교전래와 그 사회적 성격」, 『역사학보』 6
- 고유섭, 1967, 『한국탑과의 연구』
- 장상렬, 1967, 「료동성탑」, 『고고민속』 1967-1
- 이용범, 1973, 「북조 전기불교의 고구려 전래」, 『동국대학교논문집』 12
- 김리나, 1979, 「皇龍寺의 丈六尊像과 新羅의 阿育王像系佛像」, 『진단학보』 46·47
- 서영대, 1981, 「고구려 평양천도의 동기」, 『한국문화』 2
- 문명대, 1983, 「고구려 불탑의 고찰」, 『역사교육논집』 5
- 김영태, 1986, 「高句麗 佛教傳來의 諸問題」, 『佛敎學報』 23
- 이기백, 1986, 「三國時代 佛教受容과 그 社的 意義」, 『新羅思想史研究』
- 이기백, 1987, 「삼국유사 탑상편의 의의」, 『두계이병도박사구순기념 한국사학논총』
- 신동하, 1988, 「고구려 사원조성과 그 의미」, 『한국사론』 19
- 노용필, 1989, 「보덕의 사상과 활동」, 『한국상고사학보』 2
- 김영태, 1990, 『삼국시대불교신앙연구』
- 최광식, 1991, 「신라의 불교 전래, 수용 및 공인」, 『신라문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12
- 신종원,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 신종원, 1993, 「삼국육사 아도기라조 역주」, 『송갑효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 김수태, 1994,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 지배」,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상)』
- 문명대, 1998, 「고구려 초창불교사원 초문사 이불란사의 고찰」, 『강좌 미술사』 10
-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 신동하, 2000, 「新羅 佛國土思想의 展開樣相과 歷史的 意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성, 2003, 「보덕전의 검토와 보덕의 고달산 이주」, 『한국사연구』 121
- 김방룡, 2003, 「신라 통일기 불교사상의 전개와 보덕의 열반종」, 『보덕화상과 경북사지』
- 김선숙, 2004, 「삼국유사 요동성육왕탑조의 성왕에 대한 일고」, 『신라사학보』 1
- 박운선, 2004, 「고구려의 불교 수용」, 『한국고대사연구』 35
- 김상현, 2005, 「중국문헌소재 고구려 불교사 기록의 검토」,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 신종원, 2006, 「삼국의 불교초전자와 초기불교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4
- 최광식, 2007, 「토착신앙과 불교의 관계」,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 정선여, 2007, 『고구려 불교사 연구』
- 김상현, 2007, 「고구려의 불교와 문화」,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 표영관, 2008, 「고구려 불교전래 재고」, 『고구려발해연구』 32
- 조경철, 2008, 「광개토왕대 영락 연호와 불교」, 『동북아역사논총』 20
- 하정용, 2009, 「삼국유사 고구려관련 기사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학사학보』 20
- 김두진, 2011, 「고구려 초전불교의 공인과 그 의미」, 『한국학논총』 36
-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 조우연, 2011, 「4~5세기 고구려의 불교 수용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탐구』 7
- 김복순, 2011, 「4~5세기 삼국사기의 승려 및 사찰」, 『신라문화』 38
- 정호섭, 201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4~5세기 기록의 검토」, 『신라문화』 38
- 남무희, 2011, 『고구려 승량 연구』
- 김두진, 2014,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 윤세원, 2014, 「삼국유사 요동성육왕탑조에 대한 일고찰」, 『신라문화재학술 발표논문집』 35
- 신종원, 2016, 「삼국유사 아도기라조의 새로운 역주」, 『민족문화』 47
- 정호섭, 2017, 「고구려사에 있어서의 이주와 디아스포라」, 『선사와 고대』 53

## Abstract

#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description of Goguryeo Buddhism in Samgukyusa

Jung, Ho Sub

The authors of Samgukyusa had mainly focused on Monk Bodeuk when they edited the history of Goguryeo Buddhism section. Monk Bodeuk played a critical role in introducing Buddhism to Goguryeo from China and its popularization, and subsequently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Silla and Baekje Buddhism, while hampering the spread of Taoism. In addition, the link of Goguryeo to King Asoka was highly emphasized as well as that of Silla. Overemphasis on the Buddhism of Silla appeared to have constrained them to document Goguryeo Buddhism in Samgukyusa. Articles on the Buddhism of Goguryeo are oversimplified. Samgukyusa lacks records of many Buddhist monks including Monk Euiyeon, who transformed practices of Goguryeo Buddhism. The authors of Samgukyusa dismissed many Goguryeo monks recorded in other Korean and foreign document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authors did not regard them as significant figures, who were crucial to development of Haedongbulgyo(Buddhism of the East of the Sea). However, deeds of many Goguryeo Buddhists, who worked in China, Japan, Silla and Baekje, are recorded in various historical documents. It is certain that they played an active role in development of East Asian Buddhism and contributed to its spread. Migration was very common in ancient Korea. Many monks, who were engaged with salvation

and missionary works across East Asia, are acknowledged. In addition, Buddhist monks, who were closely related to the Goguryeo Buddhism in various ancient documents, were not appropriately documented or fully appreciated under the frame of the movement of East Asian Buddhism.

New ideologies, popular at that time, were directly introduced to Goguryeo due to its geographic location being close to China. Goguryeo had developed into a multi-ethnic country formed by heterogenous groups of people with various ethnic origins. The fact that Goguryeo had the universality as East Asian Buddhism, became the background for publishing various Goguryeo Monks' biographies in various documents. In future, it is required to review systematically Samgukyusa exhibiting the fragments of Goguryeo Buddhism, various historical records, and material data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Goguryeo Buddhism as well as to distinguish its place and status in East Asia.

Keywords : Goguryeo, Buddhism, Samgukyusa